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3460-7314 FAX 02 3460 7777

‘글로벌 이슈 페이퍼’ 정보는 전 세계 122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현안 이슈가 발생한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슈 요약

콜롬비아 대선 및 ‘산토스’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 콜롬비아 대선이 5월25일과 6월15일 2차에 걸쳐 치러졌으며 산토스 현 대통령이 야당 술루아가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 5명의 후보가 출마한 1차 선거에서는 술루아가 후보가 29.3%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최종 2차 투표에서 6%차로 패배
- 1차 선거에서 패배를 딛고 산토스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었던 요인은 좌파 정당과의 연합 구축을 통한 지지층 확대, 반군과의 평화협상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 반 우리베(현 야당소속 전임대통령) 여론 확대 등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
- 산토스 정부는 대외 경제 정책으로, 1기 행정부 기간 추진한 시장개방, FTA 활용확대, 역내 경제블록 강화 등의 실용 노선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경제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디지털화 등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 ‘13년 하반기 부터 자국 산업 보호 위한 반덤핑, 세이프 가드 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어 콜롬비아 경제.통상 정책이 자국산업 육성 및 보호 위주로 선회할 가능성 상존
- 우리기업은 향후 콜롬비아 경제.통상 정책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건설 플랜트, IT, 의료, 교육, 공공조달 등 각 분야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공략 필요

콜롬비아 대선 결과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

I.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결과 및 시사점

1. 2014년도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요약

□ 선거 결과

- 2014년 5월 25일과 6월 15일 2차에 걸쳐 치러진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산토스 대통령이 강력한 경쟁자였던 술루아가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함.
-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한 1차 선거에서 술루아가 후보는 득표율 29.3 %를 기록하면서 25.7%에 그친 현직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으나, 최종 2차 투표에서는 산토스 대통령에게 6% 뒤짐.

<2014 콜롬비아 1차 대선 결과>



- 2차 투표에서 산토스 후보는 득표율 50.94%로 총 득표수 7,813,115표를 얻어 술루아가 후보 대비 약 6% 높은 득표율을 기록, 재선을 확정지었음.
- 주요 도시별로는 전통적으로 우리베(Uribe:현 야당 소속의 전임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메데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산토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권표도 1차 투표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카리브, 태평양, 아마존 지역 등에서 산토스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으며 중부지역의 경우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 차이가 10% 내외로 경합을 보였음.
- 1차 선거에서의 패배를 딛고 산토스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었던 요인은 ① 좌파 정당과의 연합구축, ② 반군과의 평화협상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 ③ 反우리베(현 야당) 여론 확대 등이라고 현지 언론 및 기관은 분석하고 있음.

<2014 콜롬비아 대선 주요 도시별 득표율 현황> (단위: %)

지역	Santos		Zuluaga		기권표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Bogota	18.08	52.48	22.09	42.21	8.46	5.30
Medellin	10.20	29.40	39.52	63.04	8.14	7.54
Cali	23.99	61.79	18.31	33.38	6.58	4.81
Barranquilla	37.89	74.12	21.82	23.75	5.70	2.12
Bucaramanga	25.08	55.93	23.49	39.55	6.43	4.51

자료원: El Tiempo

□ 현지 반응

- 콜롬비아 주요 언론은 산토스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대해 평화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산토스 정부가 추진해온 반군과의 평화협상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고 평가
- 특히 우리베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산토스 정권 비판과 무력을 이용한 평화유지정책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는 점이 재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실제로 현지 언론에서도 안티 우리비스모(Anti uribismo: 반 우리베 세력)가 술루아가 후보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
- 그 밖에 국가경제운영 및 사회복지개혁 부문에서는 1기 산토스 행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프라 건설, 산업개발, 대외교역 확대 등 산재해 있는 과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조언하였음.
- 또한 1기 행정부 때와는 달리 연정 구조로 되어 재집권을 위해 연합 정당간의 마찰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1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역대 대선 중 주요 후보 간 득표차가 가장 적은 선거였다는 점과 우리베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CD당(Centro Democratico:중도민주당)의 견제 역시 차기 정권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음.

2. 선거 결과의 의미 및 시사점

□ 선거 결과 및 의미

- 2010년 산토스 대통령 당선에 중도우파인 우리베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었다고 한다면 2014년 대선은 정치적, 이념적, 지리적으로 180도 다른 상황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산토스 대통령은 금번 재선을 위해 거의 모든 좌파정당과 연합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좌파 정당의 리더들이 산토스의 평화협상 지지를 공식화하였음.
- 이에 따라 2기 산토스 행정부의 구조 및 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되며 총 6개 정당이 연합을 한 상황임에 따라 의견 충돌 및 기타 연합 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현지 언론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산토스 재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연합정당의 좌파 인사들에 어떤 자리가 주어질지에 대해 전망하면서 산토스 집권 2기의 불안한 구조를 지적
- 그 밖에 금번 대선은 산토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군과의 평화협상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평화협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산토스 정부가 견인한 콜롬비아 경제성장정책과 시장개방, 외국인투자자유화 등의 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산토스 재선의 발판이 되었음.
- 이에 따라 2기 산토스 정부는 평화협상완료,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확충, 사회복지개혁, 국내산업개혁 등 다수의 과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1차 투표 이전부터 산토스 대통령의 재선을 확산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베 측 후보인 술루아가와 페날로사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보이는 상황이었음.
- 또한 1차 투표 이후 술루아가와 산토스를 제외한 기타 후보들의 두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으로 2차 투표 결과도 예측이 쉽지 않았으나 여러 면에서 좌파 정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한 산토스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였음.
- 이에 따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노선을 초월해 평화구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정당들의 역할이 산토스 재집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석됨.

II. 신 정부 경제정책 및 공약 사항

1. 주요 경제정책 방향

□ 기본 방향

- 산토스 정부는 집권 이후 시장개방, FTA 활용확대, 역내 경제블록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대외정책 부문에서는 이와 같은 실용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국내 경제정책의 경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성장 잠재력 강화, 국가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예상되고 있음.

□ 주요 공약 내용

- 산토스 대통령의 주요 공약 내용은 2010년 대선 때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으나 기후변화, OECD 가입 등의 경우 과거 대비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

<산토스 대통령 집권 2기 주요 공약내용>

No	공 약	주요내용
1	평화협상 완료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권 2기 첫 해에 1차 평화협상 마무리
2	저소득층 주택공급 확대	주택 120만호 추가 건설 및 유무상 공급 확대를 통한 극빈층 지원
3	원유/석탄 생산 확대	원유/석탄 생산 목표 달성 및 중소 광산기업 육성정책 강화
4	가난/불평등 해소	극빈층 밀집 지역에 대한 복지 강화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5	교육제도 개혁	2025년까지 중남미 최고의 평균 교육수준 달성
6	대외교역 지원	신 주력수출상품 발굴, 통관시스템 현대화 및 생산성 강화 등
7	지속성장 기반마련	인프라 건설, 공공투자확대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8	밀수금지법 제정	금융범죄 및 밀수단속단(UNDFC) 발족을 통한 밀수 관리 강화
9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효율성, 친환경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 관련정책 시행
10	OECD 가입	2016년까지 OECD 가입 확정
11	실업률/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정규직 비율 축소(48.6%) 및 세제혜택을 통한 정규직 채용 확대
12	인프라 개발 사업 확대	4세대 PPP 인프라 거של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13	전자정부시스템 확대	공공기관 시스템 디지털화 및 Paperless 근무환경 구축
14	토지개혁	지적정보 및 소유권 업데이트를 통한 국토 관리 효율성 강화
15	국경지역 개발	특별경제구역 지정을 통한 국경무역 활성화
16	창조산업 육성	패션, 예술, 음악 등 소프트 산업 육성정책 마련
17	디지털 혁신	IT 인프라 지속 확대 및 IT 활용 산업 육성

- 또한 현 시점에서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약보다는 중장기적 전략이 요구되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미래 성장기반 확보를 겨냥한 정책이 눈에 띈.

2. 주요 통상정책 방향 및 전망

□ 기본 방향

- 기존 FTA 및 Pacific Alliance(태평양동맹) 등 역내 경제블록을 활용한 대외교역 확대, 경제협력, 투자유치 등 기존 정책 유지
- 그러나 신규 FTA 체결의 경우 집권 1기와 비교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등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주요 공약사항 중 대외교역 및 통상 관련 공약은 단 1건에 불과하며 그 내용 역시 자국 수출산업 개발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산토스 정권 2기의 중점 사항에서 통상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통상정책 전망

-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나 기본적으로 FTA 확대체결 및 기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
- 이미 2013년 하반기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함.
-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장관의 FTA 추가 체결 계획에 대한 부정적 시각 표출은 당분간 콜롬비아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이 자국 산업 육성 및 보호 중심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함.
- 이에 따라 아직 미발효된 FTA 역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한-콜 FTA 발효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실제로 한-콜 FTA 비준 절차는 2013년 11월 상원 통과를 시작으로 하원과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나 하원의 반발 및 헌법재판소의 제동으로 발효시기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
- 또한 대선 영향으로 하원 비준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효시기가 2015년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Ⅲ.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의 기회/위협요인

1. 기회요인

□ 개발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진출기회

- 산토스 정권의 친한(親韓)성향은 양국 정부 간 관계강화 및 다분야 협력 관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였음.
- 또한 중남미 최대 프로젝트 발주 국가 중 하나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왔으며 실제로 가시적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시장임.
- 그 밖에 건설플랜트 시장 이외에 IT, 의료, 교육, 공공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짐에 따라 다분야 협력관계 구축이 용이한 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산토스 정권의 재선은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우리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국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친환경 기술 도입 확대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 개편이 중심이 되고 있음.
- 특히 콜롬비아 주요 도시는 시내 대중교통 ITS화 및 천연가스 및 전기 버스 도입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를 추진 중
-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 테마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친환경 폐기물처리 플랜트, 재활용/재가공 플랜트 등 친환경 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G2G 방산 및 공공조달 잠재력 강화

- 콜롬비아 정부의 G2G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일반 물품 구입은 물론 건설, 서비스 등 주요 공공 프로젝트 분야에 G2G 수요 증가
- 실제로 미사일, 탄약을 비롯한 방산물자는 물론 주요 장비, 시스템, 공공 병원건설 프로젝트까지 G2G 계약이 검토되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2. 위협요인

□ 한-콜 FTA 반대 지속에 따른 국가이미지 악화

- 현지 산업계 및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한-콜 FTA 의회 비준이 지속 지연될 경우 FTA의 부정적 예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현지 전경련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한국과의 FTA로 인한 예상 피해 분야 및 한국산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한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마케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

□ 연합여당체제 지속 가능 여부

- 좌파와 우파의 연합이라는 점, 다수 정당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여당이라는 점은 향후 4년간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임.
-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정치권의 개입이 많은 콜롬비아 경제/통상 분야의 정책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

< 끝 >